

# 한국어 서술어와 논항들 사이의 의미역

김윤정<sup>o</sup>, 옥철영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  
jungj0006@ulsan.ac.kr, okcy@ulsan.ac.kr

## Korean Semantic Role of subcategorization

Yun-Jeong Kim<sup>o</sup>, CheolYoung Ock  
Korean Language Processing Lab. University of Ulsan, Korean

### 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어 문장의 서술어와 공기관계에 있는 논항들의 의미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세종구구조말뭉치를 모단위로 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의미역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언어학 이론에서의 의미역을 정리하여 광범위한 의미역 판별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제 말뭉치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언어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다.

### 1. 서론

기존의 의미역 결정은 언어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언어학적 이론인 의미역 결정을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도구로써 다루고자 한다. 한국어 문장 내에서 서술어와 공기관계에 있는 논항들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 내에 서술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서술어와 공기관계에 있는 필수논항인 보어들의 문장 내 성분과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술어 위치에 오는 동사를 추출해 그 동사가 필수논항으로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을 기반으로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의미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섭렵하여 사전의 문형에 적용하여서 중의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의미역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를 제시하고, 3장에서는 의미역 결정과 그 판별기준을 제시하고 4장에서 의미역 말뭉치 구축 자료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 2. 관련 연구

기존의 의미역 관련 연구는 크게 언어학적인 것과 정보처리학적인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 언어학적인 입장은 격이론에서 시작한 의미격에서 의미 화용론적 논의인 의미역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변화해 오고 있다. 언어학에서도 문장의 격을 인정하는 쪽과 격을 배제하고 온전히 의미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뉜다. 이에 반해 정보처리학적인 입장은 입력과 출력의 코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장의 격을 인정하는 쪽의 이론 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처리학적인 입장에서의 연구 또한 격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정형화된 것만을 구분

기준으로 삼은 쪽과 말뭉치를 이용하여 현실 문장에서의 의미역을 결정하고 사상하고자 하는 쪽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처리학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의미역을 결정하고자 하므로 문내 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전을 기본 의미역 결정의 도구로 삼았다. 또한 더 광범위한 한국어 문장에서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말뭉치에 의미역을 사상하고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의미역

의미역(Theta-role, Sematic Role)<sup>1)</sup>이란, 술어의 논항이 갖는 의미상의 역할을 칭하는 것으로서, 이때 논항이 문장에서 허가받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받아야 한다<sup>2)</sup>.

한국어 문장에서 격은 주격, 보격, 목적격, 속격, 부사격으로 구분된다. 의미역은 주로 이러한 격에 부여되는 것으로 ‘행동주Agent, 대상Theme, 경험주Experiencer, 도구Instrument, 처소location, 착점Goal, 기점Source, 수혜자Benefactive’를 공통 의미역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어 문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필자의 주관에 의해 상정된 의미역의 개수도 다르고, 그 명칭도 연구자들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즉, 이는 통일된 의미역과 그 의미역을 판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문장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상정되는 의미역은 8개(행동주, 대상, 경험주, 도구, 수혜자, 처소, 방향, 방법)가 있다. 공통되게 상정된 의미역 외에도 ‘피동주, 동반자,

1) 남승호(2008:5)에서의 의미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장에서의 필수 보어는 술어와 통사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보어의 의미역이라고 부른다.’  
2) 성광수, “국어의 단어형성과 의미해석”, 서울:월인, p. 17, 2001.

목적, 기점, 착점, 자극, 비교기준, 원인, 자격, 정도, 재료, 경로, 내용, 시간' 등이 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전자사전에서 제시한 15개의 의미역을 기반으로 의미역을 상정하기로 한다. 최대한 많은 수의 의미역을 정하는 것이 목표이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의미역은 제하고 우선 22개의 의미역을 상정하였다<sup>3)</sup>.

최종 선정 의미역(22개) : **행동주 Agent**, 피동주 Patient, **대상 Theme**, **경험주 Experiencer**, **도구 Instrument**, **처소 location**, 착점 Goal, 기점 Source, **방향 Direction**, 경로 Route, **수혜자 Benefactive**, 자극 Stimulus, 원인 Cause, 자격 Qualification, 비교기준 Criterion, 동반주 Companion 목적 Purpose, 재료 Material, **방법 Method**, 정도 Degree, 내용 Contents, 시간 Time

### 3.1. 의미역 판별기준

의미역 판별기준의 기준은 21세기 세종계획 용언사전 분과에서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하였다(박철우, 김종명(2005), 남승호(2008), 성광수(1999), 시정곤 외(2000), 이성범(1999)).

#### [1] 행동주 Agent

행동주는 주격인 논항이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sup>4)</sup>. 격조사 표지로는 주격조사 '이/가', '께서', '에서', 보조사 '은/는' 이 있다.

- (1) ㄱ. 내가 저녁을 만들겠다.
- ㄴ. 선생님께서 주변에게 칠판을 닦아셨다.
- ㄷ. 정부에서 일본측에 항의하였다.
- ㄹ. 영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3)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을 기반으로 의미역을 상정해 본 결과 의미역을 22개이다. 위에서 이론과 사전의 문형을 통해 상정된 의미역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의미역은 문장 내에서 필수논항이 가지는 술어와의 관계에서 맺는 의미역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정된 의미역은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문내 필수 논항의 의미역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22개를 추출해 볼 수 있었다.

4)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무정물]인 경우 도구역을 가지게 되므로 모든 대상이 행동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동주의 주격 논항에서만 사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동문의 부사격 논항에서도 피동사건의 행동주를 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 아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에게 억눌려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 예에서 부모에게는 부사격 논항이지만 아이를 억누르는 주체가 되므로 피동사건의 행동주가 될 수 있다.

위 예에서 보듯이 주어 위치에 오는 행위주는 기본적으로 [+유정물]이어야 한다. 격조사 '에서' 는 기본적으로 처소격을 지시하고 있으나, '에서' 에 선행하는 명사가 [+무정물] 단체 명사이거나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는 행위주가 된다. [+무정물]이지만 서술어의 행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2] 피동주 Patient

피동문에 나타나는 주어는 사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주가 아니어서 사건에서 영향을 입는 의미역을 담당한다. 이때 의미역을 피동주라고 한다.

- (2) ㄱ.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ㄷ. 내 말이 엉뚱한 의미로 오역되었다.

(2ㄱ)의 '도둑을' 은 의미론적으로는 피동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타동사구문에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것을 피동주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2ㄱ) '도둑을' 은 행동주 '경찰이' 잡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본 논문에서 피동주는 피동문에서만 상정하여 사상하는 것으로 한다. 즉, (2ㄴ) 과 (2ㄷ)의 '도둑이' 와 '내 말이' 가 피동주에 적합하다.

#### [3] 대상 Theme

대상은 서술어의 행위에 의해 옮겨지거나 묘사되는 등의 행위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논항을 의미한다. 행위주와 같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논항에 해당한다.

- (3) ㄱ. 내가 그를 때렸다.
- 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벌을 세우셨다.
- ㄷ. 정부에서 이번 일을 추진하였다.
- ㄹ. 영희는 밥을 먹었다.

(2ㄱ)의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에서 '도둑을' 이 대상역에 해당한다.

#### [4] 경험주 Experiencer

경험주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어의 주격 논항에 위치하면서 어떤 행위나 상태를 인식하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즉, 인지, 지각, 감정의 주체가 되는 서술어의 주격 논항에 부여하는 의미역을 말한다.

- (4) ㄱ. 나는 영희가 좋다.
- ㄴ.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 ㄷ. 나는 그 사실을 안다./모른다.
- ㄹ. 나는 그 영화가 무섭다.

서술어가 심리술어일 경우 의미역으로 경험주를 취하게 된다. 이때 심리술어는 한국어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구분도 분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주를 상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인지를 하거나 지각을 하는 동사의 주체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주를 상정하여야 타당하다.

[5] 수혜자 Benefactive

수혜자는 주로 부사격 논항에서 서술어의 혜택을 받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대체로 수여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 (5) ㄱ.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준다.
- ㄴ. 영희가 철수에게 선물을 받는다.
- ㄷ. 철수는 영희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 ㄹ. 이 시계는 친구를 주려고 산 것이다.
- ㅁ. 형이 동생더러 금덩이를 가지라고 말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혜자의 과도한 상정을 막기 위해 수여 동사에 한정하기로 한다.

[6] 동반주 Companion

동반주는 행위주나 대상을 보조하여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한국어에서 필수 성분에 보어가 있다. 보어는 문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성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애매모호함을 없애고 규범문법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교 문법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상정되는 ‘이/가’ 만 보어라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어는 서술어가 앞의 주어와 또 다른 필수논항을 요구하는 것인데, 대개 ‘싸우다, 만나다, 결혼하다, 비교하다, 닳다’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와/과’ 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을 보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와/과’ 와 결합하여 출현한 성분을 동반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의 단순 나열<sup>5)</sup>은 동반주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6) ㄱ. 머리가 기둥과 부딪혔다.
- ㄴ. 너로 더불어 이 과업을 완수하고자 한다.
- ㄷ. 나는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다.
- ㄹ. 그는 바둑알이 한테 섞인 테셔 흰 알과 검은 알을 갈라내었다.
- ㅁ. 사무실에서 내 자리는 그의 자리와 칸막이 하나를 격하고 있다.
- ㅂ. 철수가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6ㄴ)처럼 ‘NP와’ 가 서술용언과 인접해 있을 때는 동반주가 되나 주격 논항 앞에 위치할 때는 동반주가 될

5) 대상의 나열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 사과와 배를 먹었다.  
위 예문과 같이 ‘사과와’ 는 행위주나 대상을 보조하여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대상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과를 먹었다 + 배를 먹었다’ 두 문장에서 ‘사과를 배를’ 을 공동되는 목적어 성분을 생략하여 복합문을 만들어 ‘사과와 배를 먹었다’ 가 된 것이다.

수 없다. 즉, ‘철수와 영희가’ 는 하나의 명사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철수와’ 에 따로 의미역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다.

[7] 처소 location

처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장소나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 (7) ㄱ. 골목길이 새벽안개로 뿌옇다.
- ㄴ. 어제는 하루 종일 백화점을 돌아다녔다.
- ㄷ. 언덕 위에 집을 짓는다.
- ㄹ.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ㅁ.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을 계획이다.

박철우, 김종명(2005:557)에서 ‘에’ 의 ‘로’ 로 전환 가능성을 판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sup>6)</sup>. ‘에’ 가 도착점인 경우에는 ‘로’ 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처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8] 기점 Source

기점은 동사가 이동이나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그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어떤 개체의 기원, 출처의 개념도 기점에 포함된다. ‘에서’ 에 의해 표시되는 기점은 ‘로부터’ 로 교체가 가능하다.

- (8) ㄱ. 철수가 서울에서 출발했다.
- ㄴ. 그가 부진에서 벗어났다.
- ㄷ. 김독은 골기피를 김병지에서 김용대로 바꾸었다.
- ㄹ. 다음 보기에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 ㅁ. 우리는 이 밭에서 보리 다섯 말을 거두었다.

[9] 착점 Goal

착점은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이 물리적 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끝점을, 추상적인 행위나 태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지향점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또한 말, 태도 등 지향점을 지니는 행위의 지향점은 물리적 이동의 도착점에 준하는 것으로 착점으로 본다.

- (9) ㄱ. 철수가 서울에 도착했다.
- ㄴ. 철수가 나에게 적대적이다.
- ㄷ. 철수는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 ㄹ.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9ㄹ)은 가장 기본적인 사동문이다. 사동의 주격논항은 행위주로 ‘에게’ 명사구는 착점으로 사상하기로 한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우유를 먹인 행위의 도착점이 아이

6) 한국어 문장에 나타나는 ‘에’ 는 기본적으로 착점 의미역에 사상된다. 그러나 착점이 아닌 처소일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판별하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고 의미역을 잘못 사상할 소지가 높아진다.

이기 때문이다.

박철우, 김종명(2005:560)에서는 술어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변화의 결과를 결과상태라고 상정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착점으로 보고자 한다. 착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정의에 상태나 자격의 변화 결과 즉, 변화의 도달점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추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남승호(2008)).

- (10) ㄱ.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 ㄴ. 그는 철수를 사위로 삼았다.

[10] 방향 Direction

방향은 ‘로’ 명사구로 나타나면서 도착점이라고 하기에는 끝점이 불분명한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이때 ‘로’ 명사구는 ‘에’ 명사구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 (11) ㄱ. 영수는 학교에 가다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 ㄴ. 철수는 서쪽으로 향했다.
- ㄷ. 달이 서쪽 하늘로 기울었다.
- ㄹ. 버스가 터미널을 떠나 서울로 출발했다.

[11] 경로 Route

장소 표현으로 이루어진 논항이 이동의 행위가 거쳐 가는 중간 경로를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 경로이다. ‘을 통해서’, ‘~로 해서’와 같은 문형이 판별기준이 된다.

- (12) ㄱ. 도둑이 창문으로 빠져 나갔다.
- ㄴ. 김해로 해서 일본에 갔다.
- ㄷ. 이륜차가 큰길로 다니면 위험하다.
- ㄹ. 저 숲을 통해서 길을 건너갔다.

[12] 자극 Stimulus

전형적인 심리 술어는 자극과 경험주 논항을 취한다<sup>7)</sup>. 심리 술어의 경험주는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 심리 술어의 주어 자리에는 자극이나 경험주가 올 수 있다(남승호(2008)).

- (3) ㄱ. 나는 영화가 좋다.
- ㄴ.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 ㄷ. 나는 그 사실을 안다./모른다.
- ㄹ. 나는 그 영화가 무섭다.

(3)은 경험주에 대한 예문인데, 심리술어가 경험주와 자

극 논항을 취하므로 경험주가 있는 문장에는 자극 논항이 공기관계에 있으므로 (3)의 예를 재인용하였다.

- (3) ' ㄱ. 그 영화가 나에게서는 무척 지루했다.
- ㄴ. 그녀에게는 뽀이 너무나 징그러웠다.
- ㄷ.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격분했다.
- ㄹ. 학생들은 학교측의 입장에 동감했다.

자극 의미역을 상정하지 않는 이론가들과 상정하는 이론가들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자극 논항을 대상과 원인으로 나누어서 상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쪽과 심리술어를 강조하여 심리술어의 필수논항에는 경험주와 자극을 취한다는 쪽이 있다. 어느 쪽이든 정하기 나름이다. 문제는 경험주에서 언급했듯이 심리술어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분류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자의 직관에 의해서 선부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sup>8)</sup>.

[13] 원인 Cause

박철우, 김종명(2005:562)에서는 영향주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원인 의미역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원인이라는 말에 이유를 포함한 상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을 원인이라고 한다. ‘에’, ‘로’ 명사구가 원인 의미역으로 실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정물 주어인 ‘가’ 명사구가 행위주인지 여부를 고심한 끝에 행위주이기보다 원인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 (13) ㄱ. 한강이 하수로/하수에 오염되고 있다.
- ㄴ. 지난 밤 강풍으로/강풍에 가로수가 넘어졌다.
- ㄷ.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춤씨로 유명하다.
- ㄹ. 강풍이 입간판을 전부 쓰러뜨렸다.

[14] 자격 Qualification

자격은 술어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로(서)’ 명사구가 인물의 자격이나 사물의 자격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 (14) ㄱ. 그녀는 가수로 더 유명하다.
- 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 ㄷ. 스승으로 제자의 잘못을 훈계한 것뿐이다.
- ㄹ.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냈다.

[15] 비교기준 Criterion

7) 남승호(2008)에서는 심리술어의 기본 논항을 경험주와 자극으로 보고 있으나, 김건희(2011)에서는 경험주와 원인을 기본 논항으로 보고 있다. 이 논의에 의하면 자극은 즉 원인으로 사상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8) 즉, 기계 학습을 위해서는 자극이라는 논항을 취하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심리술어의 목록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 기반 위에 경험주와 자극을 사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한국어에서는 자극 논항을 상정하는 것은 이론적인 선에서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의 의미를 가진 술어의 경우, 평가되는 대상에 상대적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개체에 기준의 의미역을 부여하고, 판단의 의미를 가진 술어 중 판단하는 대상을 비교하는 개체에 비교의 의미역을 부여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비교기준이라는 의미역을 상정하였다. ‘와’ 명사구와 ‘에’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 (15) ㄱ. 이 일은 내 능력에 부친다.
- ㄴ. 철수는 영희만 못하다.
- ㄷ. 여러분의 저에 대한 평가가 분에 넘칩니다.
- ㄹ. 철수는 영희와 성격이 다르다.

박철우, 김종명(2005:563)에서는 ‘다르다, 같다, 비슷하다’ 등의 형용사들이 ‘와’ 명사구 공기할 경우 기준치보다 동반주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이를 동반주 의미역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비교대상으로 보고 비교기준의 하위 의미역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 (15') ㄱ. 철수는 영희와 같다.
- ㄴ. 철수는 영희와 다르다.
- ㄷ. 철수는 영희와 비슷하다.

[16] 목적 Purpose

목적은 주로 이동동사의 경우,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 (16) ㄱ.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등산을 갔다.
- ㄷ. 나는 과제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

여기에서 (17ㄱ)은 부사절의 형태에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의 사상 대상은 격조사를 취하는 명사구이어야 한다. 이에 부사절은 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절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의미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7] 도구 Instrument

박철우, 김종명(2005:561)에서 도구는 행위나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의 경우, 방편, 재료, 혹은 경로를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도구와 재료, 경로, 방편을 각각 구분하여 의미역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즉 도구는 행위나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의 경우,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 (17) ㄱ. 하얀 천으로 상자를 덮었다.
- ㄴ. 칼로 사과를 깎다.
- ㄷ. 철수는 물러로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18] 재료 Material

재료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8) ㄱ. 등산객들은 깨끗한 약수로 물병을 채운다.
- ㄴ. 철수는 흰 페인트로 벽을 칠했다.

[19] 방법 Method

행위나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의 경우, 방편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 (19) ㄱ.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
- ㄴ. 그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19ㄴ)에서 ‘맛있게’는 부사절의 형태로 격조사가 표지가 되는 논항은 아니다. 그러나 의미적 특징에 의해서만 의미역을 정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어 또한 필수성분이 되기도 한다(이은섭, 2011:90).

[20] 정도 Degree

정도는 구체적인 수량, 가격 따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전형적으로 조사 ‘만큼’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강신재, 박정혜(2003)).

- (20) ㄱ. 사과를 두 개를 먹었다.
- ㄴ. 국방 예산에서 10조 원을 감각하여 사회 복지 분야에 돌리기로 했다.

[21] 내용 Contents

내용은 발화동사, 인지동사, 평가동사 등의 경우, 발화, 인지, 평가의 내용을 나타내는 의미역이다.

- (21) ㄱ. 나는 철수가 갔다고 그에게 말했다.
- ㄴ. 나는 그가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22] 시간 Time

시간이나 기간, 날짜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준하는 개체에 부여하는 의미역이다. 시간의 의미역을 갖는 구성요소는 대부분 수의적인 부가항에 해당된다.

- (22) ㄱ. 영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 ㄴ. 약속을 1시로 정하자.

위와 같이 정해진 22개의 의미역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 보았다. 22개의 의미역을 현실 말뭉치에 사상해 보고, 정해진 의미역 가운데 수정할 것과 추가 삭제할 것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4. 의미역 말뭉치 구축

본 연구에서 이렇게 정해진 의미역의 기준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존관계가 분석된 문장을 대상으로 의미역을 부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세종구문분석말뭉치 31개 파일 중에서 세종형태의미말뭉치에 포함된 21개의 말뭉치(동형

이의어 어캐번호가 부착)를 의존관계 구조로 변환(이하 UCorpus-DP)하였다. UCorpus-DP는 39,300개 문장, 413,184개 어절, 그리고 373,884개의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UCorpus-DP를 대상으로 의미역 반자동 부착 도구[25]를 사용하여 의미역 말뭉치(이하 UCorpus-SR)를 구축하였다. UCorpus-SR 말뭉치 파일에서 의미역이 부착된 서술어와 각 의미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UCorpus-SR 말뭉치 파일에서 서술어와 의미역의 개수

서술어 개수		160,206	
의미역 부착 서술어 개수		120,441	
행동주(AGT)	32,230	경험주(EXP)	1,919
피동주(PAT)	4,521	동반자(COM)	2,309
대상(THM)	86,867	기점(SRC)	5,758
착점(GOL)	11,996	처소(LOC)	8,151
자극(STM)	175	원인(CAU)	1,978
(CRT)	3,202	시간(TMP)	3,939
정도(DGR)	2,428	방법(MNR)	4,869
자격(ROL)	1,496	재료(MAT)	281
도구(INS)	1,978	경로(ROU)	200
방향(DIR)	1,637	수혜자(BEN)	1,073
내용(CNT)	5,043	목적(PUR)	370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격조사의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어 의미 처리에 적합한 의미역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종구문분석말뭉치를 의존관계로 변환하고, 문형이 있는 서술어에 대해 의미역을 부착한 의미역 말뭉치 UCorpus-SR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역 설정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미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44508, 비기호적 기법 기반 인간모사형 자가학습 지능 원천기술 개발]”

## 참고문헌

[1] 고광주, “국어의 능력성 연구”, 서울:月印, 2001.  
 [2] 고영근, “國語形態論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3]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한국어교육 자료 총서 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4] 권진홍, “한국어 비서술성 명사의 논항 연구”, 서울:역락, 2010.  
 [5] 김건희,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 구조 연구”, 월인, 2011.  
 [6] 김귀화,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1994.

[7] 김명광, ‘국어 문법에서의 의미역 기능에 대한 제고’, “언어와 정보 사회” 제11권, pp. 95-110, 2009.  
 [8] 김의수,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 서울:태학사, 2006.  
 [9] 김지홍, “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광명:경진, 2010.  
 [10] 남승호,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1] 박소영, ‘한국어 피동문에 나타나는 격 교체의 비대칭성에 대하여’, “국어학” 제67권, pp.195-222, 2013.  
 [12] 성광수,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 서울:月印, 1999.  
 [13] 성광수, “국어의 단어형성과 의미해석”, 서울:월인, 2001.  
 [14] 송복승,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서울:보고사, 1995.  
 [15] 시정곤 외, “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서울:月印, 2000.  
 [16] 우형식, “국어타동구문연구”, 서울:박이정, 1996.  
 [17] 이선용,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서울:月印, 2005.  
 [18] 이선희,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서울:한국문화사, 2004.  
 [19] 이정훈, ‘통사구조 형성과 명사구 및 동사구’, “국어학” 60, 국어학회, pp.264~421, 2011.  
 [20] 이희자·이종희,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사전”, 서울:한국문화사, 2010.  
 [21] 임채경, ‘심리술어구문의 통사적 특성’, “현대문법연구” 제3권, pp.59~90, 1993.  
 [22] 임홍빈,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3] 장영천, ‘Wilhelm von Humboldt의 언어이론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제56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0.  
 [24] 정주리, “동사, 구문, 그리고 의미”, 서울:국학자료원, 2004.  
 [25] 최형강, ‘피동문의 조건과 ‘받다, 당하다, 되다’ 구문의 재고’, “국어학” 제92권, pp.159-190, 2006.  
 [26] 김완수, 옥철영, “한국어 격틀사전 기반 의미역 반자동 부착 도구”, 제 26회 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2014 (제출)

## 참고 사이트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